


공동체 소식



설 · 연중 제 5주일

시작이며 마침이신 주 하느님, 오늘 새해 첫날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하오니, 온갖 은총과 복을 가득히 베푸시어, 저희가 조상들을 기억하며 화목과 친교를 이루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2월 기도지향

- 김정원(베드로), 김말자(세실리아) 가정
- 정한조, 정지현(막달레나) 가정

설날 합동위령미사

명절을 맞아, 새해를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상을 떠나신 조상님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미리 위령미사를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심 미사 후, 공동체 친교의 시간(웃놀이)이 있습니다.

사순시기 운동

- 한 가족 성경 쓰기 : 사도행전
- 주일미사 30분 전, 공동 십자가의 길
- Rice Bowl 봉헌

재의 수요일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날, 교회는 전통적으로 머리에 재를 얹으며 회개의 삶을 다짐합니다.

☞ 재의 예식 및 미사 : 2/13(수) 오후 8시

예비자 현황 파악

공동체 내의 예비자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미 통신교리를 하고 있는 분이나 미국 성당에서 교리 중인 분, 혹은 뜻은 있으나 망설이는 분은 주임신부님께 구두나 메일로 연락바랍니다.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2/23(토) 오후 5 : 30
- 장소 : KU 성 로렌스 성당

기타

- 주일미사 10분 전,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1단’을 봉헌하겠습니다.
- 주일 독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전례부장에게 신청 바랍니다.
- ‘재의 수요일(2/13)’은 단식과 금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 다음 주일(2/17) 중심미사 후, 평협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23	210	163/164	416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정준구(파비아노)	정수한(베 드 로)
	정병훈(보니파시오)	정예찬(미 카 엘)
차주	이우영(가브리엘)	홍순익(마르티노)
	이원준(요 한)	김준영(요 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대봉사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아 네 스)	김태중(예레미야) 김시연(엘리사벳)
차주	김주연(세실리아)	고영방(스테파노) 김명은(안 젤 라)

애찬 봉사자

금주	다 함께(설날)	
차주	김시연(엘리사벳), 조경희(요안나 F.) 한정숙(마리아), 김말자(세실리아)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 드 로)
차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27	98명	384불(267불)	1,260불
2/3	97명	724불(298불)	1,730불

☞ ()는 목적인금입니다.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8: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 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명절인 설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맞이하며 ‘삼가고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설’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조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서 이제 또 다른 한 해를 주셨습니다. 경건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청합니다.

성화해설

천사들 찬양 속에 그리스도의 강복 (한스 뎀링, 1480, Oil on wood, 벨기에 안트베르펜 왕립박물관)

민족 고유의 명절이며 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설입니다. 올해는 온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주님을 향하여 참으로 새롭게 돌아서라고 초대받은 은총의 해, 곧 신앙의 해입니다. 한스 뎀링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에 둘러싸인 가운데 세상을 향해 친히 강복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은총의 해를 주 그리스도의 강복 속에 시작하며, 우리 자신이 새롭게 복음화되는 시기로 살아가길 희망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영현 시은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민수 6,22-27 <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

화 답 송 :

온 땅 이 여 노 - 래 하 - 며 주 님 께 찬 - 미 드 리 자 -

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 -

알 렐 루 야 알 렐 루 - 야 알 렐 루 야 -

1. 새 로 운 노 래 를 주 님 께 불 러 드 러 라 주 님 께 불 러 드 러 라 -
2. 묘 - 한 일 들 을 당 신 이 이 루 셨 도 다 당 신 이 이 루 셨 도 다 -

제 2 독서 : 야고 4,13-15 <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복 음 : 루카 12,35-40 <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

쉐 마

“허리에 띠를 띠는 것”



한국 사람들은 설 명절에 조상들에게 차례를 올렸 습니다. 설 명절이 공휴일이 되면서 그 점이 더 부 각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차례를 올리지 않는 사람들도 미사를 봉헌하며 돌아가신 어른들을 기억 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집안의 어 른들은 우리 곁을 떠나가셨지만, 우리의 삶 안에 중 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과의 인연이 있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습니다. 그분들 은 떠나가셨지만, 우리는 그분들과의 어떤 연대성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그분들이 하느님 안에 살아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분들과 맺었 던 우리의 인연이 소중한 은혜롭게 기억되는 그만큼, 우리는 오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분들을 기억 하고, 기도하면서 그분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마음에 다시 새깁니다.

오늘 복음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놓고...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고 말합니 다. 섬기는 사람의 자세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등불 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자비하신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 셧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그분의 가르침 을 따라 살아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겠다고 약속 하였었습니다.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라는 말씀은 힘 있는 사람 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좋은 자기의 기호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생각 해보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 위주로 행동하지 않아 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자기 위주로 살지 않아서 자녀가 성장 하고 사람답게 사는 것을 배웁니다. 노쇠한 부모를 모시는 자녀도 자기 자신만을 소중히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가

또한 그러합니다. 예술가의 작품 활동도 그렇고, 우 리가 하는 공부나 노동도 그것이 성과를 거두기 위 해서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전념 헌 신해서 성취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중 요한 일들은 모두 우리 위주로 편하게 살아서 이루어 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잊고, 헌신하 여 이루어낸 일들입니다. 오늘 복음은 그런 헌신과 섬김을 실천하라고 권합니다.

초기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 것은 그분의 섬김을 우리가 배워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섬 김은 하느님이 선하고 자비하셔서 그 선하심과 자비 를 실천하는 몸짓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흠어져 다 양한 모습으로 살듯이, 하느님의 선하심과 자비도 세 상 곳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실천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각자 허리에 띠를 띠고, 복음의 등불을 밝히 고 나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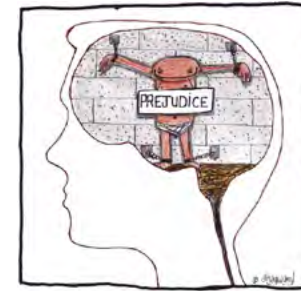
이 세상을 떠나가신 부모님을 비롯한 조상들을 오 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겠다는 마음은 선하고 자비하신 하 느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하겠다는 마음과 별개 의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래, 부 모들은 역경을 딛고도, 자녀를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자녀들은 노쇠한 부모들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스승 들은 제자들을 헌신적으로 가르쳤고, 선배들은 후 배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원하였던, 혹 은 원치 않았던, 모두 선하고 자비하신 하느님으로 말미암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한 것입니다. 오늘 우 리는 집안의 어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헌신적으 로 살겠다고 마음 다짐을 합니다. 하느님의 선하심 과 자비가 우리 안에 흘러들고 넘쳐흐르게 하겠다는 마음 다짐입니다.

- 부산교구 서공석 신부 -

마 중 물

편견을 버려라

미국 UCLA 의과대학 교수가 졸업을 앞둔 의대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감염되어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 이는 매독균 때문에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 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부모들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이런 때에 어머 니가 또 임신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은 입을 모아 대답합니다. “유산시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요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이며, 이미 낳은 아이 넷도 다 그 모양이 되었는데, 이러한 약 조건에서 아이를 또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 산시켜야 됩니다.”



그러자 교수는 대답합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 였다. 그대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에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의 학적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하 고 없애고 할 것이 아니다. 모름지기 하느님의 역사가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겸손하고 신중하게 생각할 일이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기 쉬운가 를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데 서 생겨나 내부에서 하나의 틀을 만듭니다. 이생각의 틀은 다 시 새로운 사건에 부딪칠 때 굴절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서 ‘편견’ 이 생기게 됩니다. 이 편견 때문에 우리는 새로 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견은 인간 역사의 ‘오래된 질병’ 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자신의 편견’ 입니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2장 사도신경



19. 창조주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그대로 버려두십니까?

창조주 하느님께서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도 당신의 피조물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피조물에게 단순히 존재와 실존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매 순간 존재하도록 지탱해 주시고, 행 동할 수 있게 하시며, 완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창조주에 대한 이러한 완전한 의존성을 깨닫는 것은, 지혜와 자유, 기쁨과 신뢰의 원천이 됩니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 어 내신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존속할 수 있었으며, 당신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 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지혜 11,24-26).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